

재해간호 활동에 대한 역사적 고찰*

이옥철(적십자간호대학 부교수)
조갑출(적십자간호대학 교수)
신기수(적십자간호대학 조교수)
백희정(적십자간호대학 조교수)

A Historical Review on Disaster Nursing Activities in Korea (1945-2005)

Ogcheol Lee/Kapchul Cho/Gisoo Shin/Hee-Chong Baek

* 본 연구는 2006년도 적십자간호대학 교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Abstract

Purpose: This historical research was done to identify disaster nursing activities during the last 60 years through the most serious disasters during the last 60 years (1945-2005) in Korea. **Method:** For the data collection, three of main daily newspaper and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were reviewed and nurses who were called out to the most serious disaster onsite were interviewed. **Results:** The nurses were positively involved for setup onsite clinic, mobile medical services, triage, CPR, and psychological support during response and recovery phase, while hardly involved during preparedness phase. **Conclusion:** The clarification of job description for disaster nursing and developing systematic training program should be followed.

[Keywords: disaster, disaster nursing, victims, nursing activities, historical review]

I. 서론

1.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재해란 인간에게는 조기사망, 삶의 질 저하, 건강수준 악화를 유발하는 총체적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재해발생에는 시간과 장소가 따로 없으며, 국제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의 재해가 매주 한 건씩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해는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는 환경의 변화와 정치적 이기주의, 인구의 대이동 등으로 인해 다양화, 대규모화 되는 추세이다. 최근에도 남아시아의 쓰나미,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파키스탄의 지진, 과테말라의 산사태는 한번에 수천에서 수십만의 생명을 앗아가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자연재해인 풍수해로 인해 지난 10년간(1991-2000) 연평균 122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으며, 매년 17,219 명의 이재민 발생과 5800억 원 이상의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내 열차전복, 비행기 추락, 다리붕괴, 유람선 화재, 도시가스 폭발, 건물붕괴 등의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중앙재해대책본부, 2001). 또한 이제까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여겨왔던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정도의 지진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등 재해발생의 위협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재해 발생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킴으로써, 죽은 자와 산 자 모두가 예기치 못한 사건 경험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게 된다. 신체적 손상이 없다 하더라도 생존자는 재산상의 손실로 인한 정신적 외상과 악화된 생활환경으로 인한 이차적 건강문제를 경험하게 되며, 이들을 돕는 구호담당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역시 제 2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¹⁾²⁾

이제까지의 재해관리시스템에서 나타난 재해 관련서비스는 치수사업이나 소방안전 점검을 통한 예방단계사업과 재해피해 후 기간시설 복수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1990년대에는 예상치 못한 대형사고를 맞아 이를 인적재해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었으며, 재해의학이나 재해간호의 개념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재해 시 건강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재해간호는 이미 나이팅게일 크리미아전쟁터에서의 간호활동에서도 잘 나타나 있으나, 이를 따로 재해간호라 정의하고 구분하지 않은 채 필요에 따라 동원되거나 파견되는 형태로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³⁾⁴⁾ 재해건강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자 할 때 간호는 의료인력 중 가장 유용한 인력으로 간주되며, 임상간호와 지역사회간호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지식과 기술에 재해라는 특별한 상황을 접목하여 새로운 간호역할 확대가 기대되어진다. 역사는 간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간호의 역사가 항상 전진만 해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역사고찰을 통해 인식하고, 과거 우리가 잃어버린 간호고유의 영역을 되찾아 미래간호 정책 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⁵⁾⁶⁾

이에 본 연구는 날로 증가하는 재해와 이에 따른 재해건강서비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60년간(1945년-2005년)의 대형재해 발생 시 행하여진 간호활동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정리함으로써 재해 시 간호활동의 범위와 가능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지난 60년간의 주요 재해 시 간호사의 역할을 확인한다.
- 2) 재해와 관련된 간호활동을 재해발달단계별로 분류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의 설계 및 범위

본 연구는 1945년 이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인적재해에 국한

하여 간호사들의 재해의 예방, 대응 및 복구에 있어 대응, 복구 및 예방 등의 간호활동에 대하여 후향적으로 접근(Retrospective Approaches)인 역사학적 연구(Historical Research)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중 사회적 재난을 제외한 대형재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사회적 재난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전쟁 및 테러를 포함하고 있어, 이는 민간인의 관리범위를 초월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7)

2. 자료수집

1) 일차적(Primary) 자료수집

주요 재해구호기관인 대한적십자사 본사 자료실, 일간지 문헌정보실, 국립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 등 재난현장에 의료진을 투입했던 주요병원의 자료, 대한간호협회 및 한국간호과학회 자료실 및 공문서 보관소 등에서 대상과 관련된 문서(공문, 기사, 수기 등)를 수집한다.

(1) 주요재해 조사

연구의 진행을 위하여 1945년 대한민국 정부수립부터 2005년까지의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우리나라 재해관리를 주관해온 내무부의 풍수해관리를 위한 통계와 오늘날의 행정자치부 산하 소방방재청에 이르는 통계자료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관련기관의 자문을 얻어, 자연재해와 인적재해로서 기록된 사건의 전수를 조사하였다.

(2) 관련기사 및 기록 분석

지난 60년간 발생한 재해 전수에 대해 의료구호 활동을 통한 간호활동이나 독립적인 간호활동에 관한 기사를 검색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검색대상 일간지는 3대 주요 일간지로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였으며, 간호협회에서 발행하는 간협신보를 포함하였다.

2) 현장 참여자와의 심층면접

관련기사 및 기록 중 인명피해의 정도가 크고 간호활동 기록이 분명한 사건으로서, 자연재해 부분에서는 2002년 태풍“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인적재해에 있어서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2003년 대구지하철화재사고를 대상으로 하였다. 면접은 재해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했거나 응급센터 또는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재해대응단계와 복구단계에서 활동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심층면접을 위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재해 발생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최초 투입시기, 활동기간, 활동장소, 파견사유 등 포함)
- 앞으로 재해 발생 시 간호사가 담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는, 간호사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경험을 통해 재해 시 간호활동을 위해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문서화(Documentation)한 뒤, 조직화(Organization)하고, 해석(Interpretation) 하였다.

3. 자료분석

전문가 집단 및 연구자 모임을 통하여, 외적비평도(external criticism)와 내적비평도(internal criticism)를 사용하여 문서의 신뢰도를 평가한 후, 긍정적 비평도(positive criticism) 및 부정적 비평도(negative criticism)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주요재해와 인명피해

지난 60년간 발생한 주요재해의 발생연도와 인명피해 현황은 표 1-1, 1-2와 같다. 자연재해에 있어서는 1959년 발생한 태풍 '사라호'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인명피해를 기록했으며, 비교적 통계가 정확해진 근래에 발생한 자연재해는 2003년 나 당시의 지료는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것으로 기록되었다.

한편, 인적재해에 있어서는 1977년 발생한 '이리역 폭발사고'가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기록했으며, 1995년 '삼풍백화점붕괴사고'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표 1>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1945-2005)

발생시기	재해명	발생원인	총 인명피해	사망자수	부상자수
1959-09-15	태풍사라	태풍	750	750	0
1962-08-27	순천수해	호우	290	242	48
1972-08-18	중부수해	호우	550	473	77
1979-08-24	태풍जू디	태풍	136	136	0
1980-07-21	중부수해	호우	290	180	110
1981-08-31	태풍에그니스	태풍	139	139	0
1984-08-31	대홍수	호우	343	193	150
1987-07-15	태풍셀마	태풍	345	345	0
1987-07-21	중부대홍수	호우	167	167	0
1987-08-29	태풍다이너	태풍	73	73	0
1989-07-24	수해	호우	178	128	50
1990-09-09	한강대홍수	호우	163	163	0
1991-08-22	태풍글래디스	태풍	103	103	0
1995-08-19	태풍자니스	태풍	65	65	0
1998-07-31	전국수해	호우	324	324	0
1998-09-29	태풍야니	태풍	57	57	0
1999-07-23	태풍올가	태풍	67	67	0
2001-07-14	중부수해	호우	66	66	0
2002-08-30	태풍루사	태풍	321	246	75
2003-09-12	태풍매미	태풍	518	131	387

<표 2> 인적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1945-2005)

발생시기	재해명	발생원인	총 인명피해	사망자수	부상자수
1995-03-02	부산역여객차량	유류사고	56	42	14
1957-06-23	부산용송유관	송유관파열	78	38	40
1960-03-02	부산국제고무공장	성냥	101	62	39
1963-01-18	목포연호침몰	침몰	141	140	1
1967-04-08	성동구C46항공기	추락	97	59	38
1970-10-14	충남열차버스충돌	충돌	77	45	32
1971-12-25	대연각호텔화재	화재	226	163	63
1973-08-12	영동역화물열차사고	탈선후 화재	51	40	11
1974-11-03	동대문전농동화재	전기합선	121	88	33
1974-12-02	세종시민회관화재	전기합선	131	53	78
1977-11-11	이리역폭발사고	화차폭발	1,402	59	1,343
1984-01-14	부산대아호텔	석유난로 부주의	106	38	68
1987-08-14	공항창고폭발	화약	89	9	80
1993-03-28	부산구포열차사고	열차 전복	206	78	128
1993-07-26	목포아시아나항공기사고	항공기 추락	110	66	44
1993-10-10	서해훼리호전복	선박 전복	359	292	67
1994-08-11	경부선 미전역 구내사고	열차간 정면충돌	297	1	296
1994-10-21	성수대교붕괴	용접부실시공	49	32	17
1994-10-24	충주호관광선박화재	엔진과열	62	29	33
1994-12-07	아현동가스공급기지화재	가스누출	61	12	49
1995-04-02	대구가스폭발	발하폭발	303	101	202
1995-06-29	삼풍백화점붕괴	부실시공	1,439	502	937
1995-07-26	인천진흥화학폭발	의약품취급부주의	64	7	57
1995-08-21	경기여자기술학원화재	방화	53	37	16
1995-08-25	충북선교량붕괴	열차전복	190	1	189
1996-02-04	중부고속55중 추돌	안개속 과속	94	10	84
1996-07-27	부산해운대	열차충돌	93	0	93
1997-09-21	과천경마장안전사고	가스유출사고	183	0	183
1998-04-02	충북민주지산산악사고	폭설과 안전부주의	73	63	10
1998-09-11	부천LPG충전소폭발	취급부주의	84	1	83
1999-10-30	인천노래방화재	화기취급부주의	137	57	80
2000-05-16	부산서부교회	집단이질	105	0	105
2000-11-02	안산단일화학폭발	반응기 과열	53	6	47
2000-12-31	강북구미아동	조명시설 추락	77	0	77
2001-09-15	전남순천가스폭발	취급부주의	52	3	49
2002-04-15	김해롯데산추락사고	중국민항기추락	161	128	38
2003-02-18	대구지하철화재	방화	340	192	148
2003-08-08	대구열차사고	열차 추돌	106	2	104

19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재난발생에 관한 기록은 일제강점기 중 기록된 것들로 수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구호사업에 대해 다루고 있다. 대부분의 재난은 수해로 인한 것이었으며, 피해기록 중 인명피해 기록에 있어, 1934년 영산강 범람으로 인해 7만 여명이 죽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며, 1936년 발생한 수해는 1,916명 사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보다 정확히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⁸⁾

1945년 이후 대한민국정부가 들어섰으나 재해에 관한 기록은 찾을 수 가 없었으며, 한국 전쟁이후 풍수해와 인적재해라 할 수 있는 대형사고가 기록되어 있었다. 자료는 주로 소방방재청과 국립방재연구소의 자문을 통해 ‘재해극복사’와 신문기사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수집된 재해사고 기록은 50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기준으로 추리게 되었다. 이는 응급의학 분야에서 재해의학으로 구분하게 되는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⁹⁾¹⁰⁾

자연재난의 경우 인명피해 기록은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상자에 대한 기록이 없이 사망자를 중심으로 통계를 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 인명피해는 이보다 많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인적재난의 경우 성수대교는 49명의 인명피해를 내었다고 기록되었으나 당시 상황을 감안하여 기록에 포함하였다. 1950년대부터 인적재난의 경우 많은 인명피해를 내었으나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이후 이들을 인적재난으로 구분하여 국가적 차원의 관리시스템에 포함하였다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인적재난의 경우, 부상자에 대한 기록이 자연재해에 비해 상세하였다.

2. 기사분석을 통한 간호활동 분석

전체 재해에 대한 관련기사 검색을 시도하였다. 대부분의 기록을 물질적 피해나 복구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기사내용 중 간호활동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우리나라 응급의료전달체계의 역사가 20년이 채 안된 정도로 일천한 가운데, 현장출동이나 응급의료센터의 체계적 대응은 그나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그 필요성에 따라 형식을 갖추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연구자는 자연재난 중 기록이 비교적 풍부한 태풍“루사”와 “매미”를,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집중분석 하였다. 기사는 3대 일간지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대한간호협회에서 발간하는 간협신보에 대해 인터넷 기사검색을 이용하였다. 수집된 기사는 특별히 간호활동이라고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기사의 내용 분석을 통해 각각의 간호활동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 현장진료 지원

자연재해의 경우 지역적 고립으로 인한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출동의 형태가 많았다. 「의료봉사단」, 「이동진료단」의 형태로 병원에서 파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의사를

중심으로 진료소를 설치하거나 방문 또는 진료버스를 활용한 순회진료를 함께 수행하였다.

연세의료원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영동세브란스병원, 조선일보사는 제 15호 태풍 '루사'로 침수피해를 본 강원도 강릉지역에서 3일 오후부터 1주일 예정으로 무료 진료활동을 벌인다. 내과와 소아과, 피부과, 안과 등 의사 10명과 약사·간호사 등 의료진 20여명으로 구성된 '강릉 수해지역 이동진료단'(단장·김준명 감염내과 교수)은 두 팀으로 나뉘어 강릉시청·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강릉지역을 순회하며 진료활동을 벌인다(2002.09.05, 조선일보).

강릉시보건소 집계에 따르면 강릉지역에 의료봉사단을 보낸 의료기관은 14개, 간이진료소가 설치된 곳은 15군데이다...강릉대병원 의료봉사단도 수해지구로 출퇴근하며 피부과 위주의 진료와 예방주사 접종을 하고, 의료물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하고 있다. 연대세브란스병원 및 영동세브란스병원, 동인병원, 명지병원, 한양대병원, 강릉의료원, 가톨릭의료원 등에서도 강릉지역 수재민 무료진료와 구호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2002.09.12, 간협신보).

당시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자연재해의 경우 대부분 대형병원에서 진료단을 구성하여 임시진료소를 차리거나 순회 진료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일간지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거나 간협신보에서는 진료보조, 예방접종, 물품조달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2) 응급센터에서의 대응

인적재난의 경우, 현장에서 이송된 환자를 응급센터에서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응급센터는 순식간에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을 가져오고 부상자와 그의 가족이 진료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게 되므로 간호사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부상자 가족의 안정 등 부수적 활동이 요구되었다. 헌혈을 자원하는 경우 채혈실로 안내하거나 직접 채혈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미 사망하였거나 도착 후 바로 사망하는 부상자에 대한 사망처리와 가족에 대한 지지를 제공하였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직후부터 인근 병원을 비롯하여 서울시내 44개 병원에는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속속 실려 오고 피해자를 수소문하는 가족들이 몰려들면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병원측은 의사 100여 명과 간호사 200여 명으로 긴급대책반을 편성, 증상자들을 수술실로 긴급히 옮기는 한편 병원 마당에도 간이침대를 펴놓고 응급 구호활동에 분주(중략) 속속 밀려드는 부상자와 방송을 듣고 가족의 생사여부를 확인하려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미 퇴근했거나 막 퇴근을 준비하던 의사·간호사외에도 비상연락을 통해 비번인 직원들까지 출근(중략). 장병 60여명은 사고소식을 듣고 1백여 명의 부상자가 입원해있는 강남성모병원으로 달려와 헌혈하였다(1995.6.30, 중앙일보).

오후 8시55분쯤 현장에서 젊은 여자의 것으로 보이는 허벅지가 절단된 왼쪽다리가 발견돼

(중략) 후송된 병원들에 다리를 잘린 여성 부상자를 긴급 수배하였다(병원간 협조구하기).

대구 지하철 사고로 인근 병원 응급실에는 환자와 보호자, 실종자 가족들이 몰려 아수라 잡이였다. (중략) 부상이 심한 일부 환자들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했다. 사망자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오열을 토하는 유가족들로 병원은 종일 침울했다 (2003.02.18, 조선일보).

3) 심리적지지

수해지역에 지원을 나간 간호사들은 수재민의 사연을 들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정도의 심리적 지지를 수행해 오다가 2003년 대구지하철화재사고 시 체계적 접근이 이루어졌다. 정신간호학을 담당하는 간호학 교수를 주축으로 자원봉사 형태로 이루어지다가 최근에는 정부의 기금을 확보하여 시범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적 지지는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일반인의 체계적인 접근만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니 재해현장에서 비형식적 지지를 수행해온 것을 알 수 있었다.

(중략)그들에게 작은 힘이 될수 있다는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었다. 우리는 수해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슬픔을 함께 나누려고 노력했다 (2006.08.23, 간협신보).

(중략)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통한 삶의 활력찾기’ 프로그램을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중략) 20여명의 정신보건전문간호사들은 매주 유가족을 찾아가 가슴 아픈 사연에 귀 기울이고 위로와 지지가 될 수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심리 충격정도, 신체증상, 외상성스트레스장애(PTSD)로 이행될 가능성 등을 측정해 개개인에 맞는 상담활동을 펴고 진감검진도 실시(중략). 그간의 상담활동을 토대로 서울내러티브연구소에서는 최근 ‘유가족 자조모임’을 주관해(중략). 또한 유가족 중에서도 정서적 후유증이 특히 염려되는 어린이들을 위해 ‘별과 함께 쓰는 이야기 캠프’를 8월중 열 계획이다(2003.07.24, 간협신보).

4) 간접적 도움활동

대한간호협회가 발행하는 간협신보는 간호사의 간접적 도움활동에 대해서도 기사를 다루었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수해를 당한 지역의 간호지부에 성금을 전달하였으며, 병원단위에서 간호부를 중심으로 수재민을 돕기 위한 바자회 개최를 통해 간접 활동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2006년에는 인공신장실 간호사들이 정기 투석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수해로 고립된 것을 알고 군부대를 통해 이송을 의뢰한 사실이 기사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독거노인 및 수재민을 위한 자선바자회’를 병원 앞 광장에서 개최했다. (중략) 수익금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및 간호사들과 독거노인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며 “앞

으로도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02.09.26, 간협신보).

인공신장실 간호사들은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고있는 서분남(60, 여) 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평창군 진부면이 폭우로 인해 고립됐다는 소식을 접했다.(중략) 간호사들은 곧바로 응급의료정보센터(1339)와 경찰서, 소방서에 구호요청을 하여 헬기로 안전하게 구출된 서 씨는 밤 10시쯤 병원에 도착해 투석을 마쳤다(2006.08.23, 간협신보).

3. 현장참여자의 진술내용 분석

1) 현장진료

참여자 1은 2002년 태풍“루사” 피해지역 중 하나인 삼척에 2회 파견되었으며, 2006년 강원도 태풍“위니아” 피해지역인 평창에서 현장진료에 참여한 바 있다.

현장출동에 대비하여 기본물품 목록을 보고, 진료에 필요한 물품을 챙기고, 현장에 도착하여 입시진료소를 셋팅하고, 필요한 물품이나 기구를 소독하였다. 찾아오는 환자의 차트를 기록하고 활력징후를 측정 한 뒤, 진료를 보조하기도 하였다. 그 외 독립적으로 간호활동을 한 다기보다는 약사를 대동하지 모사는 경우가 많아 의사의 처방을 보고 약을 포장하고, 복용방법을 설명해주는 일이 많고, 필요시 처방을 보고 링거주사를 놓거나 항생제 등 근육주사를 놓았다. 간단한 드레싱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끔 현장에서 봉합술(suture)을 돕기도 하였다. 전문적인 상담은 아니지만 환자분들의 마음 아픈 사연을 들어주기도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하였다. 방문 진료를 하게 되는데 독립적으로는 간단히 파스류를 제공하였다. 진료는 재해피해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만나는 자원봉사자나 구호직원들에게도 똑같이 제공되었다.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면 진료기록을 분류하여 통계를 내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 응급센터 대응

참여자 2는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 인근 대학병원에 근무하면서, 사고발생 당일 붕괴이후 3~4시간 후인 오후 8시 본인이 근무하는 병동에서 응급실로 투입되었다. 근무는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이어졌으며, 응급실과 수술실을 오가며 간호활동을 수행하였는데, 당시의 상황에서 아쉬웠던 간호활동에 대해 언급하였다.

유입된 환자 중 도착당시 이미 사망한(Death on Arrival) 환자를 구분하고, 신원확인을 위해 소지품을 정리하여 보관, 환자를 영안실로 이송을 지시하였다. 당시에는 응급실 경력이나 duty와 관계없이 모든 간호사가 비상연락을 받고 투입되었다.

당시 신원확인에 대한 시스템이 없던 상황이라 내원환자와 퇴원환자에 의한 인적사항 파악이 제대로 안되었다. 또한, 경증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어 응급업무 과다로 타 병원 이송을 의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신원확인이 없이 진행되어 환자 가족의 불만요소가 되었다.

참여자 3은 대구지하철화재사고 당시 인근 대학병원에 근무하면서 응급의료센터에서 대응하였다.

현장출동은 응급의료팀장과 레지던트 3명, 간호사 5-6명이었으나 대구참사는 특수상 황(연기, 질식 등)이어서 현장진료가 불가능하였다. 병원으로 환자이송을 판단하였고 상황발생 5분 후부터 환자를 응급실에서 받기 시작하였다. 간호부의 지시에 따라 비번 간호사와 병동 간호사들 2-3명을 모아 응급실에 투입시켰다. 반창고로 Triage에 따라 라벨을 작성하였고, 경 중은 산소실로, 흡입손상은 CPR방으로 보냈으며, DOA를 따로 분류하였다.

3) 재해 간호 제공자의 자질

참여자 1,2,3은 평상시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재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활동에서 요구되는 자질은 긍정적인 사고, 사정(assessment)능력, 현장 적응력, 일정 수준이상의 임상경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의사인력이 부족할 때 CPR을 수행할 수 있는 있어야 하며, 상황을 판단하는 순발력이 관건이라고 하였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지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약품이나 주사의 용법과 용량을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간호경력이 수준이상이어야 한다고 본다. 팀원간의 신뢰와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독선적인 성격보다는 긍정적인 사고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국제의료구조팀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며, 열악한 환경에 적응하고 환자를 직접 찾아가는 적극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간호사로서 충분한 지식은 물론, 현장진료 및 심리적 지지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라고 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재해간호활동 경험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5. 재해간호활동의 유형

간호활동은 직접간호활동과 간접간호활동이 있으며, 재해의 유형에 따라 활동 내용과 장소가 크게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건강전달체계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을 보아진다. 한편, 재해의 발달단계별로는 예방단계에서는 거의 이루어진 기록이 없으며, 복구 단계에서 활동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심층면담자의 대사수가 현장에서의 아쉬움과 간호사의 자질에 대해 언급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수집된 기사내용과 현장 참여자와의 심층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조직화할 수 있다.

<표 3> 재난유형별 간호활동 범위

	자연재해		인적재해	
	직접 간호활동	간접 간호활동	직접 간호활동	간접 간호활동
예방	-	-	-	-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력징후 측정 ·간단한 외상처치 ·심리적지지 ·투약 ·방문진료 ·보건교육 ·이송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동물품관리 ·임시진료소 셋팅 ·물품소독 ·진료통계 ·보고서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혈액채취 및 관리 ·CPR ·Triage ·수술준비 ·투약 ·영안실 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 연락 ·간이병상 설치 ·물품조달 ·소지품관리 ·신원확인 ·가족/보호자 대응
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후 방문진료 ·심리적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원금 모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적지지 ·자조그룹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IV. 논 의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기후변화와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매년 예측불허의 자연재난과 인적 및 사회적 재난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 60년간의 발생한 자연재해 또한 크고 작은 인명 피해를 가져왔으며,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1996년 ‘화성씨랜드 화재사고’,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과 같은 인적재난의 피해 또한 매우 컸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재해를 인명피해 중심으로 목록화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던 간호사의 활동을 정리해보고자 수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재해의 피해 기록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는데 이는 풍수해를 중심으로 복구지원의 우리나라 재해 관리체계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정비되었으며, 2004년 소방방재청이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되면서 체계적인 재해관리가 이루어졌음에 근간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재해 당시 인명피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다룬 기사와 간호 관련 기사를 검색하였으나 그 기록이 거의 전무하였는데, 이는 권영섭(2007)¹¹⁾의 연구에서 제시된 것처럼 재해관리에서 자원봉사 활동 대한 체계의 문제점과 일맥상통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기사에서도 간호사의 활동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사는 간헐신보에서 주로 다루고 있었으며, 주요 일간지의 경우에는 피해정도와 복구지원을 초점으로 물질과 관련하여 주로 다루고 있었다. 이는 2004년 남아시아 쓰나미 현장을 시작으로 국제의료구호팀 파견이 빈번해지고 있는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

이라 할 수 있다. 적십자간호사(Red Cross Nurse)나 재해의료팀(Disaster Medical Team)을 평소에 훈련시키고 즉각 대응하도록 하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재해 시 간호활동은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재해가 별로 없고 일본과 미국은 재해가 많아서 발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미루어 온 것도 사실이다.

재해에서의 간호활동은 직접간호활동과 간접간호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조사한 간호활동에서는 우리나라의 재해 유형에 따라 그 활동내용과 장소가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건강전달체계의 특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양원영 외, 2000). 또한 재해의 예방단계에서 이루어진 간호 활동기록이 매우 미비하고 복구단계와 대응단계에서 추후 방문활동이나 수행된 심리적 지지 간호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재해를 경험한 대상자들의 심리적 지지 및 간호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¹²⁾¹³⁾¹⁴⁾

그러나 연구조사 과정에서 만난 재해간호 경험 대상자들은 재해현장에서의 간호사의 준비된 자질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평상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재해와 관련된 의료팀의 구성과 정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재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재해 발생 당시 인명피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다룬 기사와 간호 관련 기사를 검색하였으나 최근의 기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기록이 없었다. 피해정도와 복구지원이라는 물질적 복구에 관심을 두고 있었으며, 최근의 기사라 하더라도 간호사의 활동내용을 따로 다루는 기사는 간헐신보에서 몇 가지 사례를 찾는 정도에 그쳤다. 이는 2004년 남아시아 쓰나미 현장을 시작으로 국제의료구호팀이 흔하게 파견되는 오늘날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날로 증가하는 재해와 이에 따른 재해건강 서비스 요구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60년간(1945-2005) 발생한 대형재해에 대해 주요 일간지의 기사검색과 당시 현장에서 활동한 간호사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지금까지의 재해 시 간호활동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지난 60년간 재해라 할 수 있는 대형 인명피해 사건을 목록화하고, 사건 전수에 대한 주요 3대 일간지 및 간헐신보의 기사 검색을 통해 간호활동의 흔적을 찾아 정리하였다. 재해 시 간호활동의 기록이 비교적 남아있는 사건에 대해 당시 재해 현장에 참여했던 간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고 조직화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한국의 재해간호활동의 범위와 내용을 해석하고 재정립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재해 시 간호활동은 자연재해 시 보건소는 자체대응이 어려운 실정으

로 인근 또는 다른 지역의 진료지원이 반드시 요구되었으며, 현장에 파견되는 간호사는 임시진료소나 순회 진료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협조하거나 투약, 심리적지지 등의 간호를 제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재해의 경우 현장지원보다는 응급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한번에 많은 환자를 간호하는데서 오는 과다업무라는 특성이 응급센터의 평소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밖에 간접적인 도움활동이 있었으며, 심리적 지지는 전문수준과 비전문 수준의 지지적 의사소통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1) 대한간호협회 산하 간협신보는 재해 시 간호활동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취재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재해 시 간호사의 역할을 규명하고 독립적 간호활동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
- 2) 응급센터를 운영하는 각종 병원에서는 재해 시 출동할 가능성이 있는 간호사에 대해 특수상황에서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해대응훈련을 규정화하고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 3) 재해 시 간호사의 역할과 활동범위를 직무분석을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이인숙, 하양숙, 김윤아, 권용희(2004). "PTSD Symptoms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After Typhoon Rusa", 한국간호과학회지, 34(4): 636-645
2. Quarantelli, E.L.(1988). 『What is a disaster: perspectives on the question』. new York.:Routledge
3. 이옥철(2006). 『응급 및 재해간호』, 서울: 현문사
4. 김문실(2006) 『간호의 역사』. 서울:대한간호협회
5. 양원영, 강윤숙, 이옥철, 조인재(2000). "적십자간호사업의 역사적 고찰 적십자간호대학 논문집", 22:155-157
6. Lusk, B.(2006). "Nursing History; education, Research, Practice",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개교 100주년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7. 소방방재청(2004). 『소방방재관련법령집 I』.
8. 소방방재청(2006). "일제강점기의 한해와 수해대책", 세이프코리아, 가을호
9. 임경수, 황성오, 안무업(1995). 『대량환자의 구조와 응급처치』, 서울:군자출판사
10. 왕순주(2005). "재해시 인간중심의 보건의료방재 시스템의 원칙". 한국방재학회지, 5(4):6-16
11. 권영섭(2007). "재해구호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12. 고영애, 신상숙, 양선희, 이옥철, 주혜경, 신상숙(2001). "보건소 간호사를 위한 재해간호". 적십자간호대학 논문집, 22:40-49
13. 전시자 (2000). "위기상황 스트레스 관리", 적십자간호대학 논문집, 21:102-112
14. 전중합(2003). "돌아보는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전국 대학소방안전관리과 교수협의회 정기 총회 및 세미나 자료

논문접수일 : 2008년 10월 15일

심사의뢰일 : 2008년 10월 21일

심사완료일 : 2008년 11월 19일